

여호수아 1:8에 대한 새로운 번역 제언 - 행위냐, 토라냐 -

민경구*

1. 들어가는 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모세의 죽음(신 34장)과 그들을 인도하여 요단 강을 도하하는 여호수아(수 3장). 그 가운데 여호수아 1:1-9가 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행동하기(1:10 이하) 직전에 배치되어 있는 본문이며, 야웨와 여호수아의 독대(獨對)를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마치 행동 강령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¹⁾ 때로는 새해 초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본문이 설교되기도 한다.²⁾ 그것은 본문에서 ‘행하라’라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 1:8에서 ‘묵상하라’와 ‘행하라’를 강조하기 때문이며, 그것을 ‘형통하리라’와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 교회에서 묵상과 행위를 강조하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수 1:8 『개역개정』)

*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세대학교 구약학 외래교수. 92vision@hanmail.net.

1) 이동원,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 13판 (서울: 나침반, 1996), 21 참조; 김지철, 『여호수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구약시리즈 5 (서울: 두란노, 2004), 171.
2) 2014년 1월 19일 최성규(순복음인천교회) 목사는 여호수아 1:1-9를 본문으로 삼아 “담대하자”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그는 여호수아 1:8을 근거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http://www1.fgictv.com> 제공); 2013년 1월 6일 이영훈(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본문을 가지고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 설교에서 그는 여호수아 1:8을 근거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본문을 석의하였다 (<http://www.fgtv.com> 제공).

그러한 긍정적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명확히 해석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한글 이외의 현대어 번역본들에서는 『개역개정』과 차이가 나타나며, 동일한 현상이 헬라어 역본인 70인역(LXX)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본 소논문은 여호수아 1:8의 본래 의미를 상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가장 먼저 여호수아와 야웨의 독대(獨對)를 묘사하는 본문의 전체 문맥(여호수아 1:1-9)을 관찰할 것이다(2.1). 그 후에는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를 다른 한글 번역본들과 비교하며 고찰함으로써, 『개역개정』의 번역이 최근의 현상인지 혹은 이전부터 있어왔는지 살필 것이다. 동시에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을 관찰하여 『개역개정』과 비교할 것이며, 고대 역본인 70인역을 살펴봄으로써 히브리 본문에 대한 이해를 다룰 것이다(2.2). 다음 단원(2.3)에서는 여호수아 1:8을 품고 있는 본문 단락을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원인으로 여호수아 1:8을 해석함에 있어서 『개역개정』과 다른 번역본들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는지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2.4)으로 새로운 번역 제언과 그로 인해 제기되는 신학적 차이점을 설명할 것이다.

2. 본문

2.1. 통일성

여호수아 1:1은 나래티브의 형태로 모세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서술한다. 신명기 34장이 모세의 죽음을 주제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에서(34:5), 여호수아 1:1은 신명기 34장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모세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신명기 32:50과 31:14 등에서 확인된다.³⁾ 여호수아 1:1에서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야웨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다(수 1:1b *אל־יהושע יהוה ויאמר יהוה*). 그와 달리 여호수아 1:10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צוה*)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9절에서 야웨가 여호수아에게 명령(*צוה*)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으며, 그것은 야웨의 말이 9절에서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내용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1:1-9가 땅 점유와 관련된 것을 서술한다면, 10-15절은 요단 강을 건너는 것과 함께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을 건너 함께 싸울 것을 명령

3)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Das Alte Testament Deutsch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3), 14 참조; M. Noth, *Die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3), 41.

하고 있다(12-15절). 그런 이유로 9절과 10절은 구분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1:2는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 서편으로 넘어가라는 야웨의 명령을 담고 있다. 그것은 나레티브로 기록된 1:1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1:2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어나서 땅으로 건너가라’(קום עבר את־הירדן הזה)는 명령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1-9에서 땅에 대한 언급은 2-6절에 제한적으로 언급되었고, 7절 이하는 그와 달리 율법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2-6절은 7-9절과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⁴⁾

여호수아 1:9에는 “강하고 담대하라”(חזק ואמץ)는 표현이 확인된다. 독특하게도 חזק와 אמץ의 연결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들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신 3:28; 31:6-7, 23). 하지만 여호수아 1:9에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הלא צויתוך)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이미 주어졌음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용어의 연결이 이미 여호수아 1장 안에서 발견되며(6, 7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9절의 서술은 5절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9절은 전체 단락(1-9절)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호수아 1:1-9의 주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주제로 나타난다. 그 땅은 야웨가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תנחיל את־העם 6절). 이목을 끄는 것은 ‘땅’에 대한 언급이 2-6절까지 빈번하게 확인되지만(2, 4, 6절), 7-9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덧붙여서 2-6절에서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에 들어가는 것에는 아무런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웨가 함께 있을 것이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미완료 형태로 기록된 약속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אֲהיה עִמָּךְ לֹא אֶרְפֹּךְ וְלֹא אֶעֱזֹבְךָ).⁵⁾

그것과 비교할 때 7-8절에서는 ‘땅’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토라’가 중심에 위치해 있다(왕하 21:8 참조).⁶⁾ 7절에서 확인되는 모든 토라가 8절에서는

4) R. Smend, *Die Entstehung des Alten Testaments*, Theologische Wissenschaft 1, 2nd ed. (Stuttgart: Kohlhammer, 1981), 111-125, 114 참조.

5) M. Görg, *Josua*,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1), 12 참조; H. W. Hertzberg,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14; 김정우, “지도력의 계승(수 1:1-9)”,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4 (2006), 76-79.

6) O. H. Steck, *Der Abschluss der Prophetie im Alten Testament. Ein Versuch zur Frage der Vorgeschichte des Kanons*, Biblisch Theologische Studien 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135 참조. 슈텍(O. H. Steck)에 따르면 여호수아 1:7을 위시하여 말라기 3:22는 열왕기하 21:8과 근접한 본문이다.

“토라책(תּוֹרָה סֵפֶר)”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만한 것은 2-6절에서는 땅 점유가 야웨의 함께하심이라는 약속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7절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형통’(שָׁכַל)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본문에 기록된 불변화사 לַמֶּנַעַן는 목적문장(Finalsatz)을 이끄는 것이다.⁷⁾ 따라서 7절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토라를 다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명기 29:8[9]에서 기록된 שָׁכַל 동사의 히필형태는 땅 점유와 연결되어 있다. 즉, 아무런 조건이 없이 땅 점유를 서술하는 2-6절과 달리 7절 이하는 토라 순종이라는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7-9절은 2-6절과 분리된다.⁹⁾

여호수아 1:1-9*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을 발견하게 된다. “야웨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וַיֹּאמֶר יְהוָה אֶל־יְהוֹשֻׁעַ)는 것은 예언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써,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야웨의 말이 직접 인용되어 있다(사 7:3, 10; 8:1, 3, 5; 렘 1:7, 9).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לֹא־יָמוּשׁ סֵפֶר הַתּוֹרָה הַזֶּה מִפִּיךָ)라는 여호수아 1:8에 따르면 여호수아 입에는 율법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 59:21. 참조: דַּבְּרֵי אֲשֶׁר־שָׁמַעְתִּי לֹא־יָמוּשׁוּ מִפִּיךָ). ‘말’(דַּבֵּר)과 ‘토라’(תּוֹרָה)의 변화를 제외한다면,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신명기 18:18의 약속(וַנִּתֵּן דַּבְּרֵי בְפִיךָ)을 기반으로 하여 더 잘 이해되며, 1절은 7-9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⁰⁾

7) W. Gesenius und F. Buhl,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R. Meyer, hrsg. (Berlin: Springer, 1987-2005), 714 참조.

8) 『개역개정』의 절 구분이 BHS 구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논문에서는 히브리어를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BHS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그것과 구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시할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תִּשְׁכַּלְיֶם)”(신 29:6-8[7-9]).

9) R. G. Boling and G. E. Wright, *Joshua : An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82), 124 참조; 그와 다른 이해로는 송병현, 『여호수아』, 엑스포지멘터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77을 비교하라.

10) C. Schäfer-Lichtenberger, *Josua und Salomo. Eine Studie zu Autorität und Legitimität des Nachfolgers im Alten Testament*,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58 (Leiden: E.J. Brill, 1995), 52-53 참조; 프레벨(C. Frevel)은 신명기 18:15와 여호수아 1:17의 연결성을 정당하게 제시한다. C. Frevel, *Mit Blick auf das Land die Schöpfung erinnern. Zum Ende der Priestergrundschrift*, Herders Biblische Studien 23 (Freiburg i.Br.: Herder, 2000), 282, 각주 83 참조; 김정우, “지도력의 계승(수 1:1-9)”, 79 참조; E. Noort, *Das Buch Josua. Forschungsgeschichte und Problemfelder*, Erträge der Forschung 292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8), 26. 그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파 지도자’를 시작으로 ‘군사령관’ 그리고 ‘토라 교사’로 변화하고 있음을 서술한다.

2.2. 번역본들

2.2.1. 『개역』 이전의 번역본들

한글로 번역된 구약 성서는 1911년 『구약전서』라는 이름으로 발간된 이후에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였고, 1930년 개정이 완성된 『성경전서』가 간행되었다.¹¹⁾ 우리가 가지고 있는 1950년대까지 한글 성서들은 여호수아 1:7-8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구약전서』 ¹²⁾	『구약전서』 ¹³⁾	『성경전서』 ¹⁴⁾
7 오직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야 내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룰법을 다 직혀 힘하야 좌우편으로 치우치지 말어아가는 곳마다 형통하리라	7 오직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야 나의 종 묘세가 네게 명한 룰법을 다 직혀 힘하야 좌우로 치우치지말나 그리하면 가는 곳마다 형통하리라	7 오직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야 나의 종 묘세가 네게 명한 룰법을 다 직혀 힘하야 좌우로 치우치지말나 그리하면 가는 곳마다 형통하리라
8 이 룰법 칙을 네 입에셔 써나지말게 하며 쥬야로 목상하야 그 가온덕 기록한대로 다 직혀 힘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한 길을 엮고 형통하리라	8 이 룰법칙을 네 입에셔 써나지말게 하며 쥬야로 목상하야 그 가온덕 기록한대로 다 직혀 힘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8 이 룰법칙을 네 입에셔 써나지말게 하며 쥬야로 목상하야 그 가온덕 기록한대로 다 직혀 힘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초창기 한글로 번역된 성서들은 서로 유사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1911년 번역본과 1930년 번역본 사이에서 어순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의미적으로는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30년 번역된 한글 성서와 1950년 성서는 문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글 초기 번

11) 이것은 한글로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출간되었다. 1928년에 10권(창, 출, 레, 민, 신, 수, 삿, 룻, 삼상, 사)의 번역이 완성되었고, 이듬해에 시편과 요엘이 번역되었다. 그리고 1930년 완성된 『성경 기억』에는 17권(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스스기, 룻기, 삼무엘상,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오바야, 요나, 학개, 말나기)의 ‘개역 구약’이 포함되어 발행되었다.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 사업』(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149.

12) 『구약전서』(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13) 『구약전서』(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14) 대한성서공회, 『관주 성경전서』(서울: 대한성서공회, 1950).

역본들은 90년대 번역본들과 마찬가지로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율법책을 … 주야로 묵상하야)’과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난다. 따라서 한글 성서는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의미의 번역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성서 이해는 1961년 번역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과 이후 번역서들에서도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점을 다음 단락에서 관찰할 수 있다.

2.2.2. 『개역』 그리고 이후의 한글 번역본들

한국 교회는 1970년대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고, 그것과 맞물려 1961년 출판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은 한국 성도들의 신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1998년 출간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2001년 1월 19일에 주요 교단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된¹⁵⁾ 이후에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덧붙여서 『공동』(공동번역 성서 1977)과 『표준』(성경전서 표준새번역 1993)의 개정판들인 『공동개정』(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1999)과 『새번역』(성경전서 새번역 2004) 그리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발간된 가톨릭의 『성경』(2005)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성서들 중에서 최근 번역된 것들은 여호수아 1:8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개역개정』	『공동개정』	『새번역』	『성경』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u>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u>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책에 있는 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u>발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u> 그렇게만 하면 네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u>발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u>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u>발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u>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본래 부정적 형태인 금령(לֹא-יִמּוּן)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새번역』에서는

15)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 제공.

긍정적 명령으로 번역된 것을 제외하면, 번역본들에서는 내용상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한글 성서들에서 8a절은 두 가지 명령형으로 번역되었다. 첫째는 ‘주야(밤낮)로 토라책을 묵상하라’(והגית בו יומם ולילה) 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חשמר לעשות ככל-הכתוב בו)는 것이다. 두 동사는 모두 미완료(Imperfekt) 형태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2인칭과 3인칭에서는 청유형(Jussiv)으로도 해석된다. 더 나아가 ‘제거하다’(מוש)라는 동사는 부정형을 나타내는 לא와 함께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유형의 의미보다 강한 정언 금령법(apodiktisches Verbot)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⁶⁾ 따라서 לא-ימוש ספר התורה הזה מפיך는 ‘이 토라책을 네 입에서 멀리해서는 안된다’로 해석되어야 한다. 두 번째 동사로 사용된 ‘묵상하다’(הגה)는 1-연속법(consecutivum)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앞에 기록된 동사의 시제의 연속으로 이해된다. 이미 위에서 이 문장이 시편 1:2와 문자적인 연관성이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 낮과 밤은 ‘형통’과 ‘고난’의 시기¹⁷⁾에 좌우되지 않는 것으로 ‘언제나’ 또는 ‘항상’을 의미한다(시 119:97, 98).¹⁸⁾

여호수아 1:8aβ(למען חשמר לעשות ככל-הכתוב בו)을 『개역개정』은 『개역』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하는 것은 미완료형태의 שמר 동사를 청유형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공동개정』, 『새번역』 그리고 『성경』에서도 『개역개정』과 유사하게 번역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למען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하며, 한글 이외의 다른 성서들에서는 한글 성서와 구별되는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2.2.3. 다른 언어 번역본들

한글 이외의 번역본들에서 8a절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인역은¹⁹⁾ למען을 ἵνα로 번역하여서 그 이후의 문장을 ‘명령형’으로 이

16) A. B. Ernst, *Kurze Grammatik des biblischen Hebräisc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45, 73 참조.

17) 차준희, 『시가서 바로 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3), 86 참조.

18) H. J. Kraus, *Psalmen 1-59*, *Bibli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V/1*, 5th e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37 참조.

19) και οὐκ ἀποστήσεται ἡ βίβλος τοῦ νόμου τούτου ἐκ τοῦ στόματός σου καὶ μελετήσεις ἐν αὐτῇ ἡμέρας καὶ νυκτός ἵνα συνῆς ποιεῖν πάντα τὰ γεγραμμένα. 70인역을 독일어로 번역한 Septuaginta Deutsch(Das griechische Alte Testamen in deutscher Übersetzung)는 70인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Und das Buch dieses Gesetzes soll nicht aus deinem Mund weichen und du sollst dich Tag und Nacht in ihm üben, damit du verständig bist, alles Geschriebene zu tun.

해한 것이 아니라, 종속절의 하나로 보았으며 그 기능은 ‘목적문장(네가 지혜롭게 되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유사하게 여호수아 1:8aβ을 ‘목적문장’의 의미를 가진 종속절로 서술하는 번역본들은 Luther 성서(LUT),²⁰⁾ Elberfelder 성서(ELB),²¹⁾ 로마-카톨릭 성서(EIN),²²⁾ 그리고 최근에 개정되어서 출간된 Zürcher 성서²³⁾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영어 번역본인 New English Translation(NET)²⁴⁾ 그리고 English Standard Version(ESV)²⁵⁾에서도 그것과 동일한 의미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따라서 여호수아 1:8a는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여호수아 1:8a는 2-6절과 구별된 7-9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1절과 7-9절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여호수아 1:1, 7-9

1절은 ‘야웨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 서술을 시작한다. 여호수아에서 모세가 ‘야웨의 종’으로 빈번하게 정의되고 있는 것²⁷⁾과 달리 신명기에서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언급될 필요가 있다(신 34:5 참조).²⁸⁾ 여호수아 1:2-6 본문은 야웨로부터 주어지는 땅을 주제로

20) “Und lass das Buch dieses Gesetzes nicht von deinem Munde kommen, sondern betrachte es Tag und nacht, dass du hältst und tust in allen Dingen nach dem, was darin geschrieben steht.”

21) “Dieses Buch des Gesetzes soll nicht von deinem Mund weichen, und du sollst Tag und Nacht darüber nachsinnen, damit du darauf achtest, nach alledem zu handeln, was darin geschrieben ist”

22) “Über dieses Gesetzbuch sollst du immer reden und Tag und Nacht darüber nachsinnen, damit du darauf achtest, genau so zu handeln, wie darin geschrieben steht.”

23) “Dieses Buch der Weisung soll nicht von deinen Lippen weichen, und du sollst sinnen über ihm Tag und Nacht, damit du alles hältst, was darin geschrieben steht, und danach handelst.”

24) “This law scroll must not leave your lips! You must memorize it day and night so you can carefully obey all that is written in it.”

25) 2007년에 새로 보완된 ESV는 여호수아 1:8a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글로 번역된 주석서의 경우에서 한글과 영어 또는 독일어 성서를 병치함으로써 원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T. C. Butler, 『여호수아』, WBC 성경주석,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4), 58 참조.

27) 수 1:1-2, 7, 13, 15; 8:31, 33; 9:24; 11:12, 15; 12:6; 13:8; 14:7; 18:7; 22:2, 4-5.

28) F. G. López, “Deut 34, Dtr History and the Pentateuch”, F. G. Martínez and C. J. Labuschagne, eds., *Studies in Deuteronomy in Honour of C. J. Labuschagne*, Vetus Testamentum Supplements 53 (Leiden: E. J. Brill, 1994), 47-61 참조. 그는 “야웨의 종”이라는 명칭을 근거로 여호수아 1:7이 신명기 34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달리 오토 (E. Otto)는

서술하였다. 3절에서 ‘밭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표현과 5절에서 확인되는 ‘너와 함께 하며’라는 야웨의 진술은 땅이 정복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⁹⁾ 왜냐하면 그것은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6절 תנחיל את־העם הזה את־הארץ).

7절에 기록된 שכל־דֶּם 땅 정복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7-9절 역시 땅을 야웨의 선물로 이해하는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7-9절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배경으로 서술되었다. 7절은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실제적인 방안을 서술한다기보다는 땅에서 살아가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출 20:1-17 참조). 땅을 차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토라’이다.³⁰⁾ 와인펠트(Weinfeld)는 이미 오래 전에 신명기적 본문과 여호수아 1:7-9의 연결성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좌우로 치우치다”(סור ימין ושמאל)는 신명기와 신명기 사가에게서 발견된다(신 5:32; 17:20; 28:14; 왕하 22:2).³¹⁾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 1:7 אשר תלך בכל)는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신 29:8 תשכילו)와 유사하다. 따라서 7절이 신명기 본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7절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토라를 다 지켜라’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따라서 7절 이하에서는 ‘토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³²⁾

본문 8절은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לא־ימוּשׁ סֵפֶר הַתּוֹרָה הַזֶּה מִפִּיךָ)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서 유사

여호수아 1:1을 신명기 사가적 땅 점유 이야기(DtrL)로 산정하여 신명기 3:29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호수아 1:1-2에서 야웨의 권한 위임이 비준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35.

29) G. Hentschel, “여호수아기”, E. Zenger, hrsg.,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360 참조; 오토(E. Otto)는 육경 편집(Hexateuchredaktion)이 땅 점유를 핵심적인 구원 선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육경 편집은 느헤미야 시대와 결부된 것이었으며, 땅 점유 이야기(DtrL)와 제사장 문서가 육경 편집을 통해서 결합되었다.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6-7.

30) 송병현, 『여호수아』, 56-57 참조.

31)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304 참조. 와인펠트는 물론 지혜 문학과 연결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32) M. Görg, *Josua*, 12 참조; H. N. Rösel, “Lässt sich eine nomistische Redaktion im Buch Josua feststellen?”, *Zeitschrift für das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9 (2007), 184-189, 184.

한 표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유일하게 평행한 구절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사야 59:21이다.

여호수아 1:8	이사야 59:21
<p style="text-align: center;"><u>לְאִימוֹשׁ סֵפֶר הַתּוֹרָה הַזֶּה מִפִּיךָ</u> וְהִגִּיתָ בוּ יוֹמָם וּלְיָלֵילָה לְמַעַן תִּשְׁמַר לַעֲשׂוֹת כְּכֹל־הַכְּתוּב בּוֹ כִּי־אֵז תִּצְלִיחַ אֶת־דַּרְכְּךָ וְאֵז תִּשְׁכִּיל</p>	<p style="text-align: center;">וְאֵנִי זֹאת בְּרִיתִי אִתְּךָ אֲמַר יְהוָה רוּחִי אֲשֶׁר עֲלֶיךָ וְדִבַּרְתִּי אֲשֶׁר־שָׁמַעְתִּי בְּפִיךָ <u>לְאִימוֹשׁוֹ מִפִּיךָ</u> וּמִפִּי זֶרַעַךָ וּמִפִּי זֶרַע זֶרַעַךָ אֲמַר יְהוָה מֵעַתָּה וְעַד־עוֹלָם</p>

여호수아서에서 지칭되는 2인칭 남성 단수(מִפִּיךָ)는 의심할 여지없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와 달리 이사야 59:21에 서술된 ‘너’는 많은 논쟁이 되어왔다. 이사야 59:21은 61장과 연결되기 때문에,³³⁾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이사야 40-55장과 연결하여 예언자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³⁴⁾ 그와 달리 포로기 이후에 왕이 사라졌으므로, 이사야 61장의 기름부음 받은 인물을 제사장장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카스파리(W. Caspari)는 제시하였다.³⁵⁾ 또 다른 방향으로는 ‘시온’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사야 60장에서 시온이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61장에서도 시온에 대한 서술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⁶⁾ 두 본문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은 아니다.

33) O. H. Steck, *Studien zu Tritojesaja*,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203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31 참조.

34) C.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 40-66*, Das Alte Testament Deutsch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290 참조; W. A. M. Beuken, “Servant and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 as an Interpretation of Isaiah 40-55”, J. Vermeylen, ed., *The book of Isaiah. Les oracles et leurs relectures, unité et complexité de l'ouvrage/ Le livre d'Isaïe*,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8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411-442, 특별히 415-416 참조. 그는 이사야 61장의 영 부음을 이사야 44:3과 연결하여 해석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언어학적 분석을 근거로 삼아서 이사야 61장 화자와 하나님의 종(Gottesknecht)의 형태를 연결하였다.

35) W. Caspari, “Der Geist des Herrn ist über mir”, *Neue Kirchliche Zeitschrift* 40 (1929), 729-747, 특별히 734-735 참조; R. Achenbach, “König, Priester und Prophet. Zur Transformation der Konzepte der Herrschaftslegitimation in Jesaja 61”, R. Achenbach, M. Arneht und E. Otto, hrsg., *Tora in der Hebräischen Bibel.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und synchronen Logik diachroner Transformationen*,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7 (Wiesbaden: Harrassowitz, 2007), 196-245. 그에 따르면 구약성서에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장으로 한정되며, 왕은 포로기 이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6) O. H. Steck, *Studien zu Tritojesaja*, 133-134 참조; M. Wischnowsky, *Tochter Zion. Aufnahme und Überwindung der Stadtklage in den Propheten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그러나 이사야 59:21과 유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합적인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여호수아에게서 발견된다는 점이다.³⁷⁾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상용구는 여호수아의 입에 ‘토라’가 주어졌음을 전제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토라가 여호수아의 ‘입’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³⁸⁾ ‘네 입에 있는 토라’(**סֵפֶר הַתּוֹרָה הַזֶּה**)라는 표현은 신명기 18:15-18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약속과 상응한다.³⁹⁾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를 “새 모세 여호수아”로 지칭하는 김정우의 이해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결코 ‘예언자’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토라와 연결되어서 모세를 통해 기록된 ‘토라책’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기능이 여호수아에게 일임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선택하라는 신명기 31:1-8 본문 이후에 기록된 신명기 31:9-13에서도 토라 교육이 주제로 언급되고 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신 31:12-13). 이 본문에 따르면 장로와 제사장에게 토라를 넘겨주는 것은 토라를 ‘교육’(**לְמוֹד**)하기 위함이었다.⁴⁰⁾ 신명기 31:9에서 모세가 토라를 기록하여 건넸다는 것은 본래 기록된 동사들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8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231; U. Berges, *Das Buch Jesaja. Komposition und Endgestalt*, Herders Biblische Studien 16 (Freiburg i. Br., Basel: Herder, 1998), 424 참조.

- 37) R. G. Boling and G. E. Wright, *Joshua*, 117, 124 참조. 그는 특별히 여호수아 1:7-9와 신명기 17:18-20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서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프레슬러(Pressler)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왕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한 이유로 신명기 17:14-20에 나타나는 왕의 법과 비교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 Pressler, *Joshua, Judges, and Ruth*,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3; R. D. Nelson, “Josiah in the Book of Joshu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0 (1981), 531-540, 특별히 533-534 참조. 그에 따르면 여호수아 1:3, 5는 삼하 7:9-10의 약속과 연결되며, 요시아는 다윗 이후에 모법적인 다윗을 따르는 유일한 왕으로 서술되었다(왕하 22:2). 그런 이유로 넬슨(R. D. Nelson)은 특별히 여호수아 1:7-8을 요시아왕과 연결시킨다.
- 38) C. F. Keil and F. Delitzsch, *Joshua, Judges, Ruth, I & II Samue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82), 30 참조.
- 39) O. H. Steck, *Der Abschluss der Prophetie im Alten Testament*, 135 참조; 김정우, “지도력의 계승(수 1:1-9)”, 79. 그는 여기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을 “새 모세 여호수아”라고 서술한다.
- 40) R. G. Boling and G. E. Wright, *Joshua*, 124-125 참조.

(נתן / כתב)의 주어가 야웨로 사용되었던 용례와 비교한다면, 분명 모세의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그것은 토라가 모세를 통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⁴¹⁾

그러므로 만약 여호수아 1:8에서 ‘토라책이 네 입에 있다’는 것이 전제되었다면, 그것은 신명기 31:9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²⁾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신 18:18 참조),⁴³⁾ 동시에 모세처럼 토라를 교육하는 자로 서술되었다.⁴⁴⁾ 여호수아가 모세의 토라를 교육함으로써 그는 모세와 같은 자로 묘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를 뛰어넘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토라의 테두리를 뛰어넘지 못하며(신 31:12-13; 참조, 수 24:26), 모세와 같은 자는 이후에 다시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신 34:10-12).

여호수아 1:8α2(וּבְתוֹרָתוֹ יִהְיֶה יוֹמָם וּלְיָלֵה)와 시편 1:2b(וּבְתוֹרָתוֹ יִהְיֶה יוֹמָם וּלְיָלֵה)의 연결성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을”(בו)이라는 표현은 위에 기록된 ‘이 토라책’(סֵפֶר הַתּוֹרָה הַזֶּה)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1:2에 기록된 ‘이 토라책’에 상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본문이 문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⁴⁵⁾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은 8αβ절(לִמְעַן תִּשְׁמֹר לַעֲשׂוֹת כְּכֹל-הַכְּתוּב בו)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인간 행위에 관한 신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41)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180-182 참조;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53 (2014), 256-280, 262 참조.

신 5:22b וּיְכַתְּבֶם עַל-שְׁנֵי לַחַת אֲבָנִים וַיִּתֵּן אֱלֹהִים

신 31:9* וּיְכַתְּבֶם מֹשֶׁה אֶת-הַתּוֹרָה הַזֹּאת וַיִּתֵּן אֶל-הַכֹּהֲנִים בְּנֵי לֵוִי ... וְאֶל-כָּל-יִשְׂרָאֵל

42) C. Schäfer-Lichtenberger, *Josua und Salomo*, 14 참조.

43) R. Achenbach, “‘A Prophet like Moses’ (Deut 18:15) - ‘No Prophet like Moses’ (Deut 34:10): Some Observation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entateuch and the Latter Prophets” Thomas B. Dozeman, Konrad Schmid, Baruch J. Schwartz, eds.,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435-458 참조. 일반적으로 신명기 18:18을 신명기사가적(dtr)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반하여, 그는 이것을 후대 신명기사가적(spät-dtr)인 것으로 이해한다.

44) E. Otto, *Das Gesetz des Mos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7), 208 참조.

45) M.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on the Commentary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63 참조; A. Soggin, 『여호수아』, 국제성서주석(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47;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I*,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grugh: T. & T. Clark, 1976), 5. 그에 따르면 시편 1:2는 여호수아 1:8을 인용한 것이며, 여호수아 1:8은 신명기사가(D)에 속한 것이다.

2.4. 새로운 번역 제언과 그로 인한 신학적 차이

위에서 여호수아 1:8이 다르게 해석되는 원인은 ‘שמעו’를 이해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음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개역개정』의 번역에 따르면 여호수아 1:8은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이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여호수아 1:7-9는 묵상과 실천에 있어서 적지 않게 인용되는 설교 본문이며, 보편적으로 말씀 묵상과 말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되었다.⁴⁶⁾

그것과 차별된 해석적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1:8 본문에 나타난 말씀 묵상과 약속된 행동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지만,⁴⁷⁾ 동시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는 여호수아 1:6-8은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와 같은 세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석의되기도 한다.⁴⁸⁾ 이미 한글 성서와는 다른 현대어 성서들에서 여호수아 1:8이 다르게 번역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석의들이 한글 성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 본문도 그러한 한글 성서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여호수아 1:7에서 שמעו는 이미 언급되었고, “그리하면”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었다. ‘그리하면’ 혹은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접속 부사”⁴⁹⁾이다. 이러한 이해는 이 불변화사를 인과문장(Kausalsatz)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변화사 שמעו는 본래 목적문장(Finalsatz)을 이끄는 것으로써,⁵⁰⁾ ‘~ 하기 위해’⁵¹⁾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7절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기 위해서 … 해라’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동일한 용어인 שמעו이 8절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문장으로

46) 장경철, “행통케 하는 말씀”, 『그말씀』 (1997. 11.), 270-271 참조; 안점식, “기독교의 영적 훈련에 타종교의 수행법들을 차용할 수 있는가”, 『목회와 신학』 (2004. 3.), 106-115.

47) 홍성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2)”, 『목회와 신학』 (1998. 12.), 170-173.

48) 신성욱, “설교 준비의 기본, 충분한 본문 석의”, 『목회와 신학』 (2013. 1.), 38-45.

4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참조.

50) W. Gesenius und F. Buhl,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714 참조.

51) L. Koehler und W. Baumgartner,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Bd. I (Leiden: Brill, 2004), 581 참조.

번역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8aβ절에서 그것과 연결된 **שמר**만이 명령형의 형태(“지켜라”)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שמר**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8aβ절을 이끄는 **למנוח**을 누락시킨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용어는 목적문장을 이끄는 용어이기 때문에, 8a절 본문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지키기 위해서 그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⁵²⁾

이러한 해석은 『개역개정』의 번역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 『개역개정』과 비교할 때 본문에서 주목되어야 할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그것은 토라책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의 무용성(無用性)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BHS 본문에 따르면 ‘토라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 ‘토라의 묵상’을 통해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여호수아 1:8은 두 가지 명령(말씀 묵상, 말씀 순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말씀 묵상)과 그것의 결과(말씀 순종)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석의되어야 하며, 따라서 여호수아 1:8은 시편 1:2에 더욱 근접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올바른 토라 묵상은 이미 행동 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 토라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토라 순종을 포함한다.

למנוח는 전치사 **ב**와 함께 사용되어서 ‘무엇을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쾰러(Köhler)는 이것을 ‘저음으로 읽다’⁵³⁾라고 이해하였고, 링그렌(H. Ringgren)은 그것이 ‘학습’과 연결되어 있음을 서술하였다.⁵⁴⁾ 여호수아 1:7-9 본문에서 토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나타나며, 신명기 31:9-13과 연결되어 있다면, **למנוח**는 링그렌이 제시한 것처럼 학습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7-9와 연결될 수 있는 신명기 31:9-13에서 **למנוח** 동사는 토라를 담지한 자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⁵⁵⁾ 따라서 여호수아 1:7-9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2) 정확근, “여호수아 (구약 새번역)”, 『현대가톨릭사상』 19 (1998), 211-299, 특별히 220과 비교하라. 그는 여전히 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이 율법 책이 네 입에서 떠나는 일없이 그것을 밤낮으로 되새겨,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53) L. Köhler, “Lautes Les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2 (1912), 240.

54) H. Ringgren, **למנוח**,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II* (Stuttgart: Kohlhammer, 1977), 343-347, 특별히 345 참조.

55)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261 참조.

2.5. 부수적 논의(Exkurs)

여기에서 짧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토라에 대한 강조는 언제 부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케슬러(R. Kessler)는 비록 에스라의 율법 선포가 “토라의 율법화”(Gesetzwerdung der Tora)⁵⁶⁾ 과정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함을 이야기 하지만, 그는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에는 두 번째 중심이 생성되었다”⁵⁷⁾라고 서술한다.⁵⁸⁾ 즉,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으로 인해 ‘성전’이 첫 번째 중심이었다면, 에스라의 ‘토라 선포’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중심이 되는 것이며,⁵⁹⁾ 동시에 토라에 대한 강조가 부각된다.⁶⁰⁾ 이러한 토라를 강조하는 집단을 우리는 율법학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⁶¹⁾ 특별히 유다로부터 분리된 사마리아가 예언서(Nebiim)와 성문서(Ketubim)의 일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라’만을 사마리아 공동체를 위한 근간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토라가 강조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⁶²⁾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본래 야웨의 약속으로 서술된 것과 비교할 때, 여호수아 1:7-9에서 땅 점유가 토라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면, 7-9절에서는 마찬가지로 율법 또는 토라 순종이 야웨의 약속과 동등한 가치로 고려되어야 함이 기술되었다. 그것의 귀착점(terminus ad quem)은 에스라 토라 선포 시대와 연결될 수 있으며(느 8), 그것은 토라 강조를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게 한다.

56) 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6), 158.

57) *Ibid.*, 160.

58) 소형근, “역사적 에스라와 그의 지지 그룹 ‘하레딤(חֲרָדִים)’”, 『성경원문연구』 35 (2014), 70-86, 71 참조. 그는 요세푸스에서 나타나는 전승과 달리 에스라는 역대상 6장에 제사장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에스라-느헤미야에서도 에스라를 대제사장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스라의 귀환 연대에 대해서는 그가 지적한 것처럼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59) 랍비 전통에서 이미 에스라는 두 번째 모세로 이해되고 있다. F. Crüsemann,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387 참조.

60) E. Otto,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7 참조. 오토(E. Otto)는 이러한 율법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자들을 오경편집자(Pentateuchredaktor)라고 규정한다.

61)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269-270 참조;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1 (1997), 118-144, 특별히 122-123. 그는 서기관(סֹפֵר)을 “율법의 기록자”로 이해하고 있으며, 복수형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기능을 “율법에 대한 합법적 해설자인 동시에 수호자”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김경래의 이해는 율법학자에 대한 서술과 다르지 않다.

62) R. Kessle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157 참조.

3. 나가는 말

본 소논고는 여호수아 1:1-9*에 대해서 조명하였다. 이 본문은 한국 성서 해석자/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 대해 강조할 때와 토라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인간의 실천행위를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한글 성서 번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와 달리 영어 또는 독일어 번역본들은 한글 성서 해석본들과는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영어와 독일어 번역본들은 말씀 ‘묵상’은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행하라’는 명령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שמעו*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그것은 목적문장(Finalsatz)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히브리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역시 그러한 해석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런 이유로 『개역개정』의 여호수아 1:8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지키기 위해서 그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러한 해석은 동시에 신학적 해석의 차이를 가져온다. 『개역개정』에 따르면 여호수아 1:8은 두 가지 명령 ‘묵상하라’, ‘행하라’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BHS를 비롯하여 현대어를 포함한 여러 번역본들은 한 가지 명령 ‘묵상하라’를 기록하고 있으며, ‘행하라’는 목적문장, 즉 ‘행하여 지키기 위해서’로 서술되었다. 그것은 땅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의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토라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토라 강조에 대한 귀착점(terminus ad quem)은 에스라 시대의 율법 선포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호수아 1:8은 - 행위의 무용성(無用性)을 서술하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 - 토라책에 기록된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토라와 토라 묵상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제어>(Keywords)

여호수아 1:8, 토라, 말씀 묵상, 행위, 모세.

Joshua 1:8, Torah, Meditation, Activity, Mose.

(투고 일자: 2015년 1월 2일, 심사 일자: 2015년 2월 27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3월 8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 대한성서공회, 『관주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0.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www.korean.go.kr/>).
- 김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1 (1997), 118-144.
- 김정우, “지도력의 계승(수 1:1-9)”,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34 (2006), 76-79.
- 김지철, 『여호수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구약시리즈 5, 서울: 두란노, 2004.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공저,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 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경구, “토라를 둘러싼 율법학자의 논쟁 - 포로기 이후 신학”, 『구약논단』 53 (2014), 256-280.
- 소형근, “역사적 에스라와 그의 지지 그룹 ‘하레딤(חֲרֵדִים)’”, 『성경원문연구』 35 (2014), 70-86.
- 송병헌, 『여호수아』, 엑스포지멘터리,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신성욱, “설교 준비의 기본, 충분한 본문 석의”, 『목회와 신학』 (2013. 1.), 38-45.
- 안점식, “기독교의 영적 훈련에 타종교의 수행법들을 차용할 수 있는가”, 『목회와 신학』 (2004. 3.), 106-115.
- 이동원,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 13판, 서울: 나침반, 1996.
- 장경철, “형통케 하는 말씀”, 『그말씀』 (1997. 11.), 270-271.
- 정학근, “여호수아 (구약 새번역) ”, 『현대가톨릭사상』 19 (1998), 211-299.
- 차준희, 『시가서 바로 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3.
- 홍성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2)”, 『목회와 신학』 (1998. 12.), 170-173.
- Achenbach, R., “König, Priester und Prophet. Zur Transformation der Konzepte der Herrschaftslegitimation in Jesaja 61”, R. Achenbach, M. Arneith und E. Otto, hrsg., *Tora in der Hebräischen Bibel. Studien zur Redaktionsgeschichte und synchronen Logik diachroner Transformationen*,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Altorientalische und Biblische Rechtsgeschichte 7, Wiesbaden: Harrassowitz, 2007, 196-245.
- Achenbach, R., “‘A Prophet like Moses’ (Deut 18:15) – ‘No Prophet like Moses’ (Deut 34:10): Some Observation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entateuch and the Latter Prophets”, Thomas B. Dozeman, Konrad Schmid, Baruch J. Schwartz, eds.,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435-458.

- Berges, U., *Das Buch Jesaja. Komposition und Endgestalt*, Herders Biblische Studien 16, Freiburg i. Br. · Basel: Herder, 1998.
- Beuken, W. A. M., “Servant and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 as an Interpretation of Isaiah 40-55”, J. Vermeulen, *The book of Isaiah. Les oracles et leurs relectures, unité et complexité de l'ouvrage/ Le livre d'Isaïe*,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81,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411-442.
- Boling R. G. and Wright, G. E., *Joshua : An New Translation with Notes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Garden City: Doubleday, 1982.
- Briggs, C. A., *The Book of Psalms I*,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Edingrugh: T. & T. Clark, 1976.
- Butler, T. C., 『여호수아』, WBC 성경주석,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4.
- Caspari, W., “Der Geist des Herrn ist über mir”, *Neue Kirchliche Zeitschrift* 40 (1929), 729-747.
- Crüsemann, F., *Die Tora. Theologie und Sozialgeschichte des alttestamentlichen Gesetzes*, München: Chr. Kaiser, 1992.
- Ernst, A. B., *Kurze Grammatik des biblischen Hebräisch*,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10.
- Frevel, C., *Mit Blick auf das Land die Schöpfung erinnern. Zum Ende der Priestergrundschrift*, Herders Biblische Studien 23, Freiburg i.Br.: Herder, 2000.
- Gesenius, W. und Buhl, F., *Wilhelm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R. Meyer, hrsg., Berlin: Springer, 1987-2005.
- Görg, M., *Josua*,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1.
- Hentschel, G., “여호수아기”, E. Zenger, hrsg.,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 Hertzberg, H. W., *Die Bücher Josua, Richter, Ruth*, Das Alte Testament Deutsch 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3.
- Keil, C. F. and Delitzsch, F., *Joshua, Judges, Ruth, I & II Samue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1982.
- Kessler, R., *Sozialgeschichte des alten Israel. Eine Einführung*, Darmstadt: WBG, 2006.
- Köhler, L. und Baumgartner,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Bd. I, Leiden: Brill, 2004.
- Köhler, L., “Lautes Lesen”,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2

- (1912), 240.
- Kraus, H. J., *Psalmen 1-5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XV/1, 5th ed.,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ópez, F. G., “Deut 34, Dtr History and the Pentateuch”, F. G. Martínez, and C. J. Labuschagne, eds., *Studies in Deuteronomy in Honour of C. J. Labuschagne*, Vetus Testamentum Supplements 53, Leiden: E. J. Brill, 1994, 47-61.
- Nelson, R. D., “Josiah in the Book of Joshu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0 (1981), 531-540.
- Noth, M., *Die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I*,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3.
- Noort, E., *Das Buch Josua. Forschungsgeschichte und Problemfelder*, Erträge der Forschung 292,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98.
- Otto, E., *Das Deuteronomium im Pentateuch und Hexateuch. Studien zur Literaturgeschichte von Pentateuch und Hexateuch im Lichte des Deuteronomiumrahmens*,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30, Tübingen: Mohr Siebeck, 2000.
- Otto, E., *Das Gesetz des Mos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2007.
- Pressler, C., *Joshua, Judges, and Ruth*, Westminster Bible Compan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Rösel, H. N., “Lässt sich eine nomistische Redaktion im Buch Josua feststellen?”, *Zeitschrift für das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9 (2007), 184-189.
- Schäfer-Lichtenberger, C., *Josua und Salomo. Eine Studie zu Autorität und Legitimität des Nachfolgers im Alten Testament*, Vetus Testamentum Supplement 58, Leiden: E. J. Brill, 1995.
- Smend, R., *Die Entstehung des Alten Testaments*, Theologische Wissenschaft 1, 2nd ed., Stuttgart: Kohlhammer, 1981.
- Soggin, A., 『여호수아』,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Steck, O. H., *Der Abschluss der Prophetie im Alten Testament. Ein Versuch zur Frage der Vorgeschichte des Kanons*, Biblisch Theologische Studien 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 Steck, O. H., *Studien zu Tritojesaja*,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203,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1.
-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Westermann, C., *Das Buch Jesaja Kap 40-66*, Das Alte Testament Deutsch 19,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6.

Wischnowsky, M., *Tochter Zion. Aufnahme und Überwindung der Stadtklage in den Propheten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8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1.

Woudstra, M. H., *The Book of Joshua*, The New International on the Commentary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81.

<Abstract>

A Proposal for a New Translation of Joshua 1:8: Activity or Meditation

Kyunggoo Min
(Hansei University)

This essay sheds light on a new interpretation of Joshua 1:8. In Korean communities, Joshua 1:8 is perceived as two commandments, which are “Do not let the book of the Torah depart from the mouth” and “Do not cede the activity of what is transliterated in the Torah.” Since the Bible was first translated into Korean, this has been the dominant interpretation. Thus all the Korean versions that followed basically were translated to connote the following meaning: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and you must act on what is written in it.” This translation can be positively evaluated insofar as Korean churches could defend their religious practices based upon these verse.

Nevertheless, there is difference between Korean translations and other language modern translations such as English and German. Although Korean Bible translations emphasize both commands, English and German translations have only one command, namely to meditate, and the message to act is not written in imperative.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different approaches for interpreting למען. Because this word introduces the final clause, the sentence must be interpreted in following manner: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This means that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needs to be revised.

Such an interpretative difference may lead to a theological dispute. In fact, true meditation on the Torah leads to righteous acts. For this reason, Joshua 1:8 does not focus on the futility of human, but directs our attention to the Torah and its ability.